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음 7월 13일) 제23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롯데는 어느나라 기업일까?

롯데그룹 국적 논란 '재점화'

'지배 정점' 호텔롯데
지분 99.3%가 '일본계'
유니클로·무인양품
세븐일레븐·캐논코리아 등
국내에 일본기업과 합작사
형태로 진출 계열사도 많아



롯데백화점 전주점 내에서 쇼핑객들이 몰려있는 다른 매장들과 달리 유니클로 매장에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손님이 없어 한산하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반일감정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제의 조치로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롯데그룹에 대한 국적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롯데그룹 지배의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99.3%가 일본계 지분이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호텔롯데 지분 19.07%를 보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지분도 일본회사인 L4투자회사(15.63%), L9투자회사(10.41%), L7투자회사(9.40%) 등이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자사주(0.17%)와 부산롯데호텔(0.55%)을 제외하면 99.28%가 전부 일본 자본인 것이다.

또한 국내에 일본기업과 합작사 형태로 진출해 일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계열사가 많기 때문이다.

롯데가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판매하는 제품 또는 운영하는 회사는 '유니클로', '무인양품', '세븐일레븐', '캐논코리아비즈니스', '롯데면세점', '롯데아시아주류', '한국후지필름', '롯데캐미칼' 등이다.

'유니클로'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운영하는데, 이 회사 지분은 일본의 패스트리태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대표도 전 패스트리태일링 이사인 와카바야시 타카히로가 맡고 있다.

'무인양품코리아'는 롯데상사가 40%, 일본의 양품계획이 60%를 투자해 만든 회사다. 롯데상사 역시 호텔롯데의 계열사 중 하나이고, 호

텔롯데는 일본자본이 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롯데지주와 신동빈 회장 등이 지분 97%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본 '세븐앤아이홀딩스'의 계열사인 세븐일레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는 반도체 생산장비와 복사기, 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롯데지주와 일본 캐논이 각각 50%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회사다.

아시아 맥주를 판매하는 '롯데아시아주류'는 롯데칠성음료가 지분 50%, 일본 아사히그룹홀딩스가 50% 지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지분구조가 이렇다 보

온라인 등서 보이콧 늘어
불매운동 홍보사이트에서
유니클로 등 리스트에 올라
롯데측, 안내문 발송 등
"엄연한 한국기업" 강조

니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롯데는 사실상 일본기업이니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불매운동 홍보 사이트 '노노재팬'에는 롯데가 지분을 투자한 유니클로·무인양품·세븐일레븐·아사히 맥주 등이 불매운동 리스트에 올라 있다. 심지어 롯데카드나 롯데손해보험을 일본기업으로 오인해 계약해지하자는 여론까지 있다.

반면에, 롯데측은 "롯데는 엄연한

한국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지난 1일 전국 9700여개 점포에 '코리아세븐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롯데는 어느 나라 기업이라는 질문에 롯데백화점 전주점 홍보실장은 "롯데는 매출의 96%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13만명에 이르는 직원도 전부 한국인이므로 한국기업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4년 전 도쿄(東京)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 피로연에 아베 총리가 하객으로 참석했음을 정다. 신격호 명예회장도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이자 일본 보수의 거두인 기시 노부스케 전 외무상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상기자

日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도·민주당 전북도당, 민·관·정 연석회의

도, 수출 피해 기업 용자금 지원
해외마케팅 강화 등 제공기로
수출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

전북도내 민·관·정계가 한 자리에 모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일본경제 침략대책 민·관·정 연석 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준병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위 전북도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은 물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와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 민간 등 각계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를 마친 안호영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의는 명백한 경제 침략이자 도발이다"고 규정하고 "오늘 이 자리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의 자리이자 온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도에서 파악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현황 설명과 분야별 대응책 마련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전북도의 경우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파악과 경영안정을 위한 용자금 지원, 지방세 신고 연장은 물론 수출 활력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 수출규제 제도변경 등을 제공기로 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농식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수출 농산물 피해 대책에 나서는 한편 수출 다변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업 대표 자격으로 함께한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일본의 치졸한 경제 보복으로 탄소와 화학 등 지역 전략품목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후 "세계, 금융, 연구 분야 등의 지원과 특히 규제해소에 행정력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 분야의 예를 볼 때 기간 정부의 화학가능정책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소재산업 분야 강화와 실질적인 과학기술강화 등을 위한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 회의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위기를 극복해 승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성 기자

도, 올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내 중기 대상 업체당 최대 2억원·이차보전 2%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고 2억원 한도로 기존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용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를 전북도가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와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평가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남섭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의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